

GS, 오만과 공동 LNG발전소 건설

GS EPS, 오만 국영 석유기업과 MOU ... 당진 부곡발전소 3호기 건설

국내 에너지 전문기업 GS EPS가 오만 국영석유기업(OOC)과 손을 잡고 충청남도 당진에 LNG 발전소를 건설한다.

충청남도는 “오만을 방문하고 있는 이완구 도지사와 민중기 당진군수, 이완경 GS EPS 사장이 오만 무스캇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와하이비 OOC 사장과 GS EPS의 당진부곡발전소(LNG 발전소) 3호기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월15일 발표했다.

OOC와 GS EPS는 2009-12년에 걸쳐 총 4억5000만달러를 투입해 당진군 송악면 부곡단지의 2만㎡ 부지에 550MW급 LNG 발전소 3호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오만의 상공부와 석유·가스부의 합작기업인 OOC는 에너지 관련 전문 투자기업으로 2004년 GS EPS의 지분 30%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투자를 시작했다.

OOC와 GS EPS는 LNG 발전소 3호기 건설에 이어 2020년까지 26억달러를 투입해 8호기까지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3호기 발전소 건설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 악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며 “건설과 가동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16>